

2024.08.13.(화) 증권사리포트

동아쏘시오홀딩스

비상장 자회사 성장/변화에 주목한다

[출처] 상상인증권 하태기 애널리스트

연결 영업실적 안정적으로 성장 중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연결기준 2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9% 증가한 3,245억원, 영업이익은 13.7% 증가한 223억원을 기록, 실적 성장이 뚜렷하다.

실적개선 요인은 비상장 자회사 동아제약과 용마로직스가 성장하는 가운데 적자기업 에스티젠바이오가 영업흑자로 전환한 결과이다.

동아제약의 성장, 그 외 자회사들이 성장/변화하고 있다

비상장 주요 자회사들의 성장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제약 2분기 매출은 7.6% 성장한 1,756억원을 기록했다. 일반의약품은 피부외용제(노스카나 등) 중심으로 7.3% 성장했고, 생활건강부문은 비타민제 오쏘몰과 화장품 파티온 브랜드 중심으로 19.1% 성장했다. 다만 일시적인 광고/판촉비 증가로 영업이익은 4.5% 감소한 210억원을 기록했다.

둘째, 하반기에 에스티젠바이오의 성장이 기대된다. 2분기까지 매출은 분기당 70~100억원 수준에서 유지되었지만, 2024년 3분기나 4분기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상업 생산/매출(200억원 내외 추정)이 추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2024년 매출액 610억원, 영업흑자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2024년 6~7월에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생산공장에 대해 위해 유럽 EMA/ 미국 FDA에서 실사를 진행했다. 아직 특별한 지적이 없었다. 품목허가 시점은 유럽에서 10~11월, 미국에서 12월로 예상된다. 품목 허가가 성사된다면 유럽에서는 바로, 미국에서는 2025년 2월쯤에 출시될 전망이다.

셋째, 기타 자회사 성장 비전도 좋다. 용마로지스는 안성 신허브센터((2027년 완공)를 통해서, 동천수는 신규 상주공장 완공과 음료사업 추가로 고성장할 전망이다.

Financial Data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배당수익률 (%)
2022	1,015	38	11	1,757	57.8	10.1	0.7	1.1	1.5
2023	1,132	77	58	9,134	11.1	7.9	0.6	5.8	2.2
2024E	1,287	85	66	10,500	10.6	8.8	0.7	6.3	1.8
2025E	1,475	99	80	12,788	8.7	7.0	0.6	7.3	1.8
2026E	1,666	112	90	14,331	7.8	6.4	0.6	7.7	1.8

자료 : K-IFRS연결기준,상상인증권



에이프로젠
 독보적 배양 방식 기반 CMO/CDMO 기업, 주목 필요
 [출처] 하나증권 최재호 애널리스트

독보적인 연속 배양 기술을 갖춘 바이오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기업

에이프로젠은 1971년에 설립되어 금속 가공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1년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유통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으며, 2022년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 기업인 에이프로젠을 흡수합병하면서 바이오 사업부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사업부를 주목해야한다. 독보적인 R&D 역량을 바탕으로 전통 배양 방식인 Fed-batch 대비 세포주의 높은 생산성과 생존율을 지닌 연속 배양 기술인 Perfusion 배양 방식의 GMP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2,500L 규모의 Perfusion 방식 배양기 총 4기를 보유 중이며, 압도적인 생산 수율을 주목해야한다. 경쟁사의 Fed-batch 방식은 15,000L의 배양기로 1회 배치시 회수 배양액이 약 12,000L에 불과한 반면, 동사는 2,500L 배양기로 110,000L의 배양액 회수가 가능하다. 4기 풀가동시 1회 배양으로 440,000L의 배양액 회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동사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기준으로 연간 1,029kg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글로벌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연간 약 1,000kg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연간 매출액은 약 50억 달러다. 즉, 동사의 매출 CAPA로 이해할 수 있다.

결코 적지 않은 총 10종의 바이오시밀러 Pipe-Line 보유

에이프로젠은 동물 세포 대량 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자가면역 치료제 및 단백질 치료제 중심의 항체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신약을 개발 및 판매 중이다. 국내에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이어 3번째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GS071 개발을 완료하여 일본에서 품목 승인 허가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상업화를 가장 빠르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는 허셉틴이다. 동사가 개발 중인 유방암 표적 항암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AP063은 지난 2월 인도 중앙 의약품 표준국으로부터 임상 3상 승인이 났으며, 지난 3월에는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임상 3상 시험을 승인 받은 상태다. 현재 유럽 154개의 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 외에 류머티스 관절염 등에 쓰이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AP096은 공정검증 생산 및 임상시료 생산을 진행 중이며, 이외에 리톡산, 아바스틴, 키트루다 등 총 10종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이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는 승인 6종, 개발 및 임상 8종 품목이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는 승인 8종, 개발 및 임상 3종 품목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동사 역시 총 10종의 바이오시밀러 Pipe-Line의 지속적인 상업 물량 생산 가시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기업가치 및 경쟁력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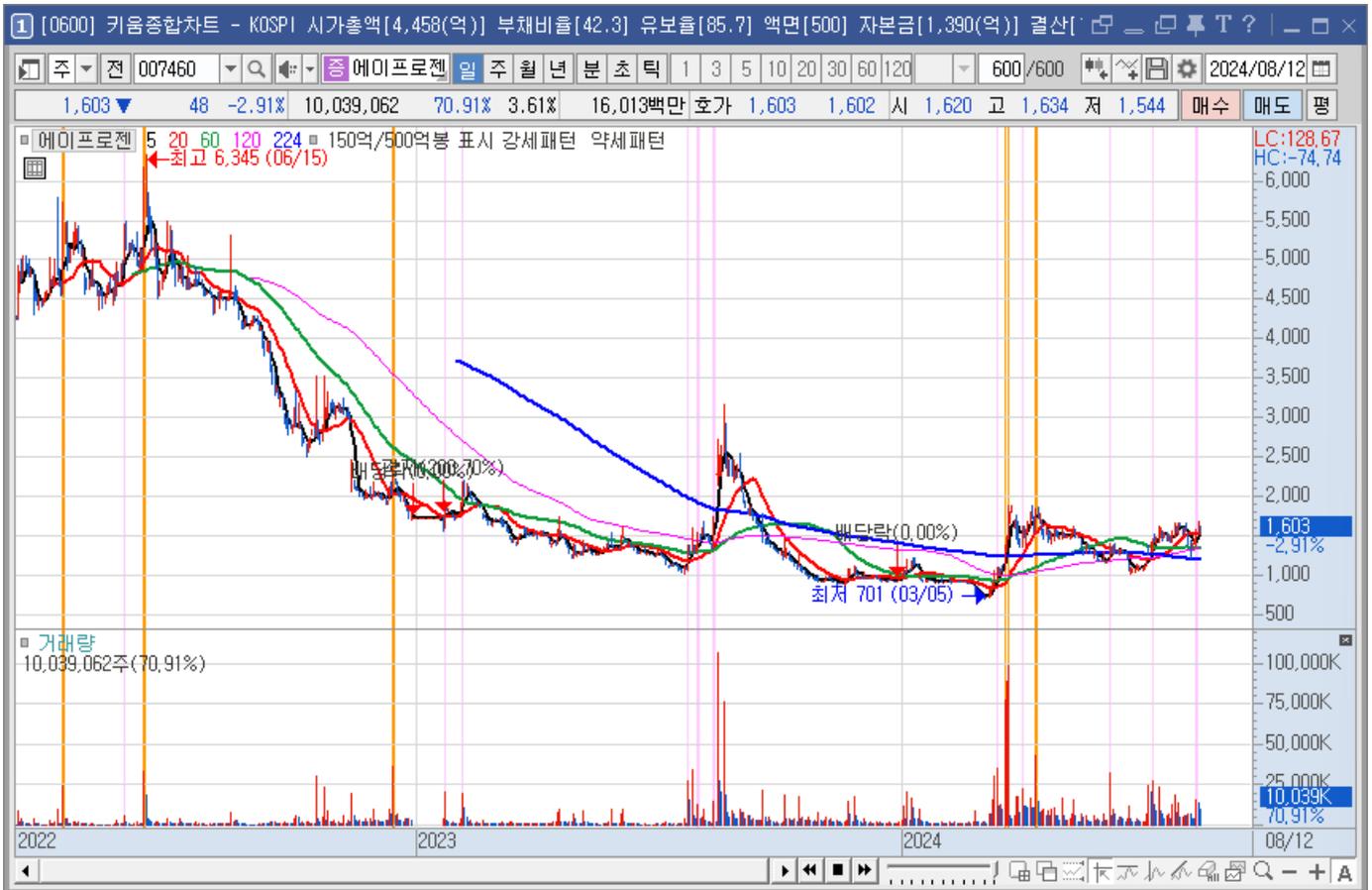
국내 Top-tier 바이오의약품 기업과 CMO/CDMO 생산 테스트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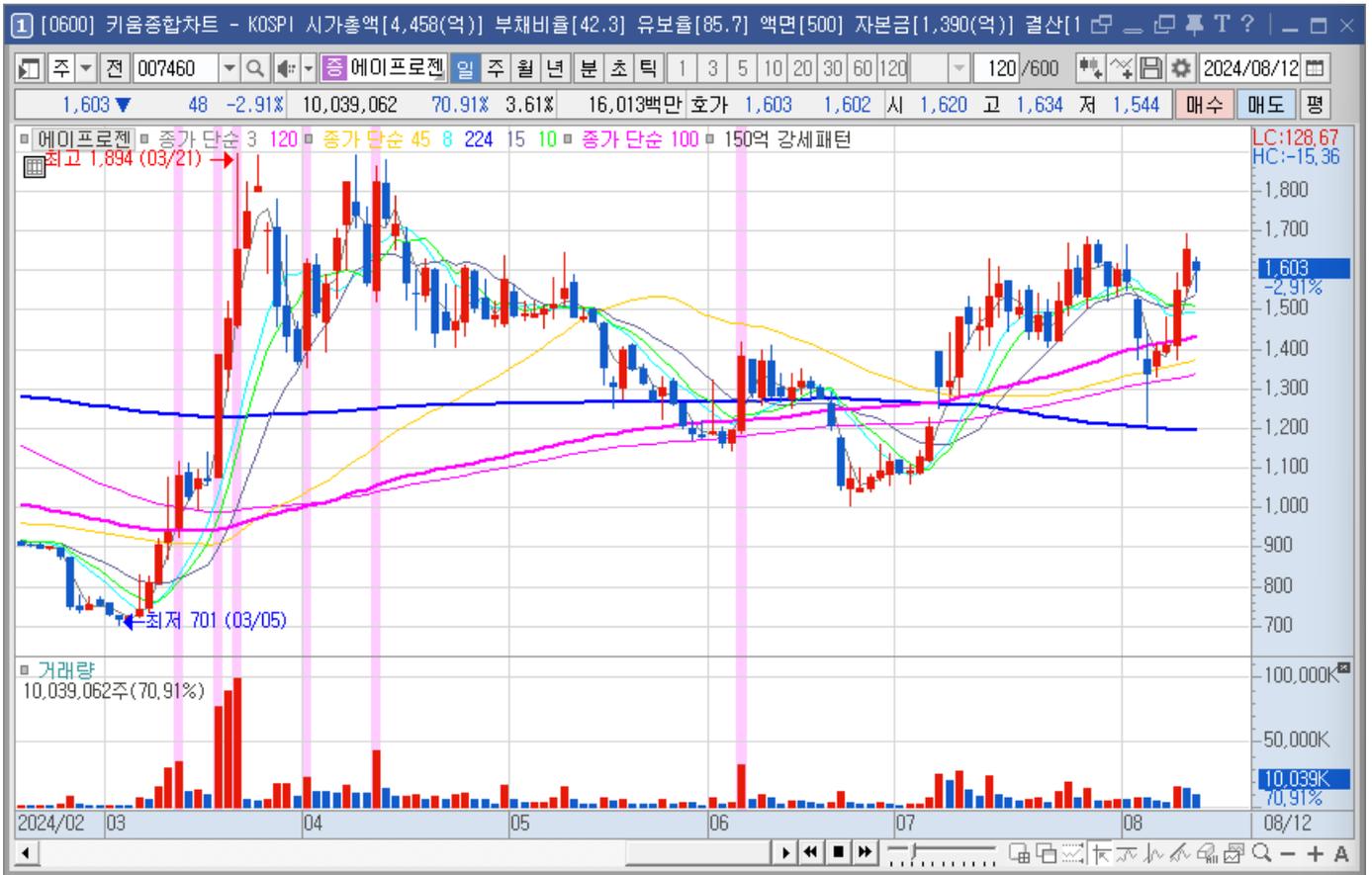
미국 대선 양당의 공통적인 약가 인하 기조 및 올 초부터 시작된 미국 생물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따른 탈중국 현상 가속화로 국내에서 높은 생산 수율을 갖추고 세포주 개발부터 상업화까지 가능한 CDMO 기업들에게는 기회 요인이다. 따라서 독보적인 생산 능력과 배양, 정제, 완제까지 One-stop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수혜 강도가 높을 전망이다. 당장 올해부터 글로벌 규모의 CDMO 계약을 기대해볼 수 있다. 현재 국내 Top-tier 바이오의약품 기업과 총 3개 품목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CMO/CDMO 테스트 프로세스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초도 물량 및 공급에 대한 계약 가시화로 생산 배정이 확정되면, 성공적인 레코드 달성으로 추가적인 CDMO 수주 기대감이 점증 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Top-tier 기업들과의 CMO/CDMO 계약, 중장기적으로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전방 시장 상황에 수혜를 볼 전망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127	26	78	151
영업이익	4	(95)	(119)	(89)
세전이익	(39)	(119)	(116)	(95)
순이익	(46)	(94)	(99)	(56)
EPS	(822)	(1,458)	(641)	(216)
증감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PER	(7.5)	(3.5)	(2.7)	(4.4)
PBR	1.2	153.5	1.4	1.0
EV/EBITDA	58.6	0.0	0.0	0.0
ROE	(14.6)	(4,341.8)	(45.9)	(37.6)
BPS	5,231	33	1,235	929
DPS	0	0	0	0





주성엔지니어링

좋은 실적과 수주 흐름

[출처] BNK투자증권 이민희 애널리스트

수익성 면에서 2Q24 깜짝 실적 기록

2Q24 매출액은 973억원(72%QoQ, 207%YoY)을 기록, 컨센서스 대비 3% 하회했으나, 영업이익은 361억원(413%QoQ, 흑전YoY)으로 기대치를 31% 상회했다. 영업이익률이 37.1%(+24.6%pt QoQ)로 크게 높아진 이유는 전분기로부터 이연된 중국 고객 향 매출이 추가되며, 반도체 장비 매출의 대부분이 수익성 높은 중국 수출 제품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달러 대비 원화약세도 수익성 제고에 영향을 주었다.

점점 돌아오는 DRAM 증설 경쟁 수혜

글로벌 DRAM 제조사들이 그동안은 HBM 증설 투자에 집중해 왔는데, 이제는 HBM 증설로 인해 상대적으로 공급부족 우려가 높아진 일반 서버 DRAM 증산을 위한 투자에 더 집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요 고객인 SK하이닉스의 경우 M16 fab 위주로 DRAM 생산능력을 내년까지 최대 월 8만장을 추가 증설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발주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DRAM 제조사들도 국가 지원하에 자체 AI 생태계를 갖추기 위한 신증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동사 수혜가 예상된다.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43,000원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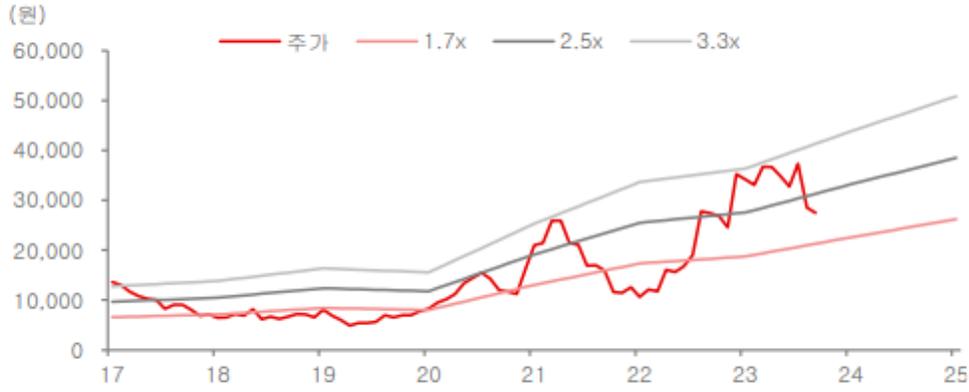
메모리 업체들이 내년 DRAM 생산능력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비메모리 향 신제품 및 신규 메모리 고객사 확보 건도 연말 전에는 좋은 소식이 들릴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동사 주가는 경기침체 리스크를 반영하며 역사적 Valuation 밴드 저점까지 하락하였으나, 좋은 실적과 최근 수주 흐름을 고려 시 이제는 반등 추세를 예상한다

Fig. 1: 주성엔지니어링 연결재무제표 요약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십억원)	438	285	414	489	531
영업이익	124	29	118	127	139
세전이익	135	45	125	127	141
순이익[지배]	106	34	99	101	110
EPS(원)	2,200	705	2,062	2,130	2,324
증감률(%)	-27.0	-68.0	192.5	3.3	9.1
PER(배)	4.8	48.5	13.3	12.9	11.8
PBR	1.0	3.1	2.1	1.8	1.6
EV/EBITDA	3.1	32.8	8.2	7.0	5.7
ROE(%)	24.9	6.8	17.5	15.2	14.3
배당수익률	1.8	0.1	0.2	0.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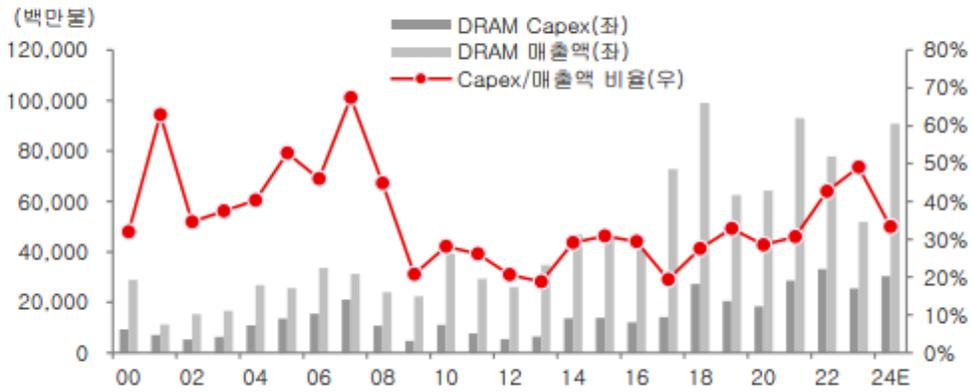
자료: 주성엔지니어링, BNK투자증권 / 주: K-IFRS 연결

Fig. 2: 주성엔지니어링 P/B 밴드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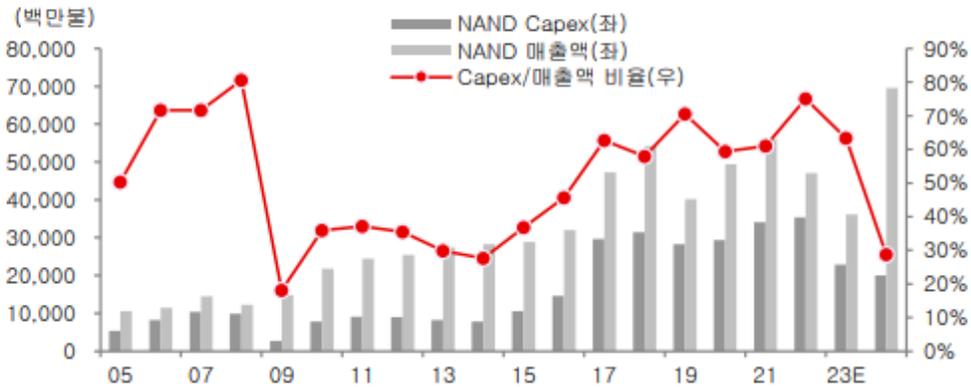
자료: BNK투자증권

Fig. 3: 글로벌 DRAM 설비투자, 매출액 추이



자료: 옴디아, BNK투자증권

Fig. 4: 글로벌 NAND 설비투자, 매출액 추이



자료: 옴디아, BNK투자증권



현대그린푸드
 안정적인 국내, 뻗어가는 해외

[출처] IBK투자증권 남성현 애널리스트

2분기 기대치 상회

현대그린푸드 2024년 2분기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를 약 8% 상회하였다.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5,424억 원(전년동기대비 +4.2%), 영업이익 325억 원(전년동기대비 +16.3%)을 달성하였다. 긍정적 실적을 기록했던 이유는 1) 단체급식 사업부문에서 간편식/카페 등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 효과가 있었고, 2) 주요 고객사 업황 호조에 따른 식수 증가(인력 증원), 3) 외식물가 상승으로 인한 단체급식 수요 확대, 4) 해외 프로젝트 피크 시점(준공) 도래, 5) 해외법인(중국/멕시코/미국) 이익 기여도가(23 2Q: 4억 원 → 24 2Q: 25억 원)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당초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던 군납식재는 수주 감소와 경쟁입찰 심화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다. 외식사업부의 경우 비수익 사이트 폐점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장 확장을 통해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약 6% 증가하였다. 다만, 선제적 인력 충원에 따른 부담으로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2억 원 감소한 12억 원을 기록하였다.

국내시장 안정적 성장, 모멘텀은 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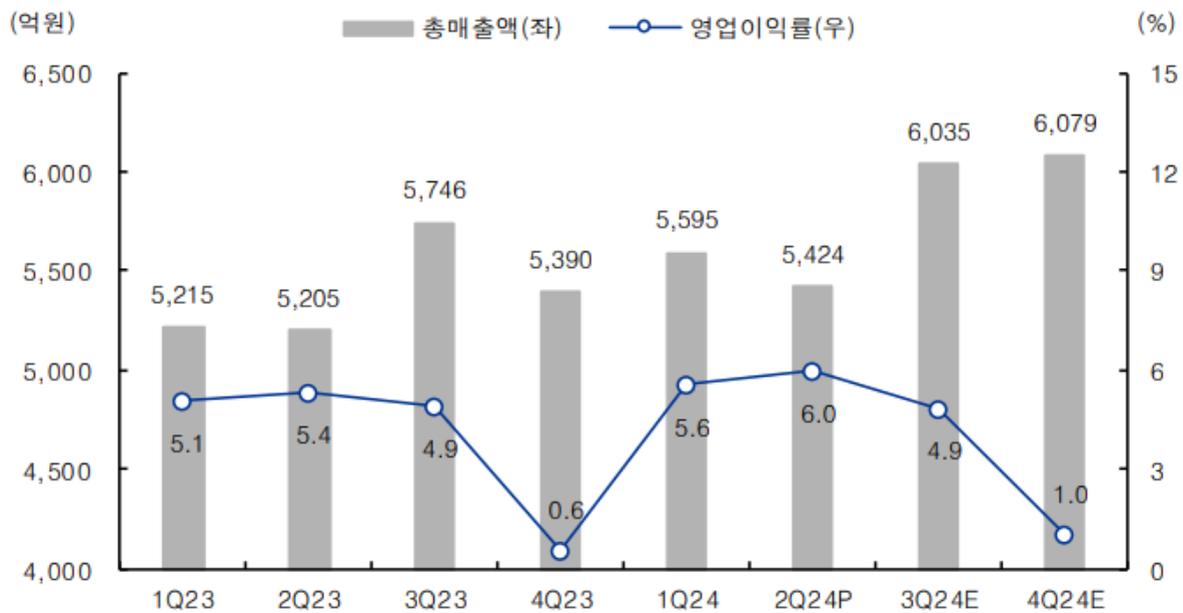
당분간 국내 시장에서 성장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이유는 1) 주요 거래처 업황 호조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식수 확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2) 외식사업부 사이트 확대를 통한 성장 가능성이 유효하며, 3) 식자재유통 사업 확대를 위한 전사적 노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4) 그리팅 출하량 증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당사에서 더욱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해외사업부 확대이다. 국내 주요 건설사 및 제조사 물량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해외사이트 확대를 통한 성장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판단한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5,000원 유지

(단위:십억원,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0	1,827	2,313	2,448	2,561
영업이익	0	65	99	110	118
세전이익	0	53	108	124	138
지배주주순이익	0	39	80	93	103
EPS(원)	0	1,387	2,370	2,749	3,032
증가율(%)	0.0	0.0	70.9	16.0	10.3
영업이익률(%)	0	3.6	4.3	4.5	4.6
순이익률(%)	0	2.1	3.5	3.8	4.1
ROE(%)	0.0	6.3	12.1	12.6	12.5
PER	0.0	8.3	5.2	4.4	4.0
PBR	0.0	0.6	0.6	0.5	0.5
EV/EBITDA	0.0	3.9	2.9	2.3	1.8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현대그린푸드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현대그린푸드, IBK투자증권



KT

2Q 리뷰 - 이젠 편하게 매수해도 됩니다

[출처] [하나증권 김홍식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매수로 상향, 12개월 목표주가 50,000원으로 상향 조정

KT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한다. 1) 단기 실적 부진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판단되고, 2) 2025년 하반기 이후엔 재차 탑라인 성장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실적 개선 추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3) 총 주주이익환원 규모가 한 단계 높아졌고 현 수준이 장기간 지속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했고, 4) 현대차 지분 오버행 이슈가 당분간 불거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12개월 목표주가는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주이익환원 규모 추정치를 7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따른 것으로 이는 기대 주주이익환원 수익률 5.5%에 해당한다.

인건비 이슈 감안 시 2Q 실적 내용상 양호, 이제 내실다지기로 전환한 듯
2024년 2분기 KT 연결 영업이익은 4,940억원(-14% YoY, -3% QoQ), 본사 영업이익 3,588억원(-12% YoY, -9% QoQ)을 기록하였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컨센서스(연결 영업이익 5,539억원)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는 임단협 조기 타결에 따른 임금 인상 소급분 반영 때문이었다. 일회성 인건비 증가분 64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임단협이 7월 말에 조기 타결되었고 관련비용을 이번 분기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그렇다. 내용상으론 나쁘지 않은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동전화매출액이 YoY 3%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마케팅비용과 감가상각비가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영업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부진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사업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자회사 영업이익 기여도 역시 1,352억원으로 전분기비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 일회성/계절적 요인을 제거하면 전분기비로는 본사/자회사 모두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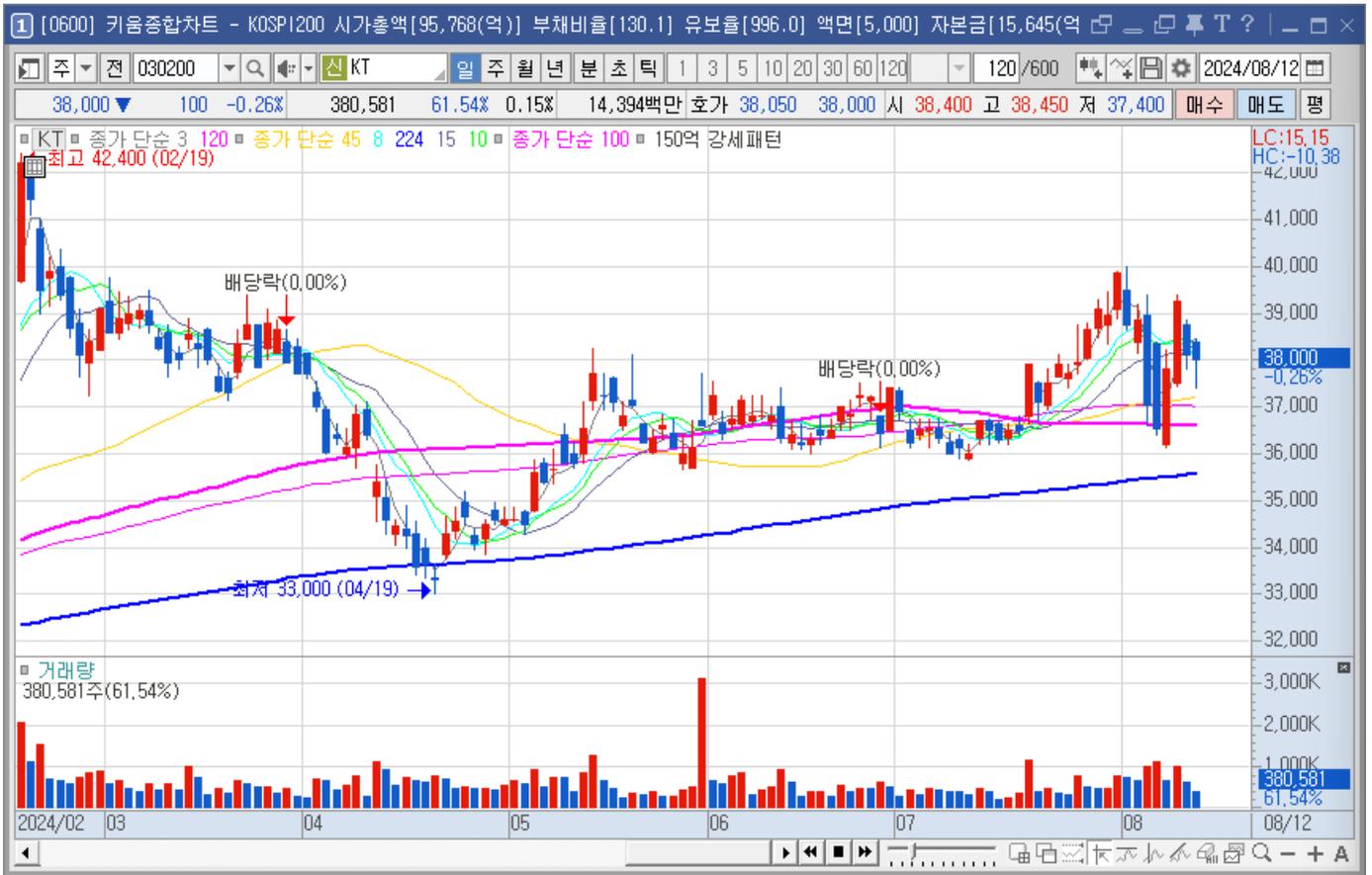
단기 실적 부진 이미 투자자들이 인지, 높아진 주주이익환원 규모 주가가 반영할 것
투자 전략상 이제 KT에 대해선 장/단기 매수로 임할 것을 권한다. 이미 투자자들이 KT가 단기 실적 부진 가능성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당초 예상보다는 이동전화매출액 흐름이 양호해 연결 영업이익 감소 폭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주이익환원 규모가 증가한 것만큼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 자회사 분양 이익 발생에 따른 배당금 유입을 바탕으로 2025~2026년 자사주 매입 소각 또는 배당 증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2024년 7천억원으로 높아짐 주주이익환원 규모가 일시적이 아닌 2026년까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2027년 이후엔 요금제 개편을 통한 이익 창출로 추가적인 주주이익환원 증대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주가는 매력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25,650.0	26,376.3	26,817.7	27,256.8
영업이익	1,690.1	1,649.8	1,605.6	1,563.4
세전이익	1,894.1	1,324.1	1,592.9	1,549.9
순이익	1,262.5	1,009.9	1,103.7	1,080.5
EPS	4,835	3,887	4,342	4,287
증감율	(6.97)	(19.61)	11.71	(1.27)
PER	6.99	8.85	9.04	9.16
PBR	0.52	0.52	0.56	0.54
EV/EBITDA	3.42	3.41	3.40	3.18
ROE	7.99	6.05	6.47	6.12
BPS	64,396	66,498	70,450	72,787
DPS	1,960	1,960	2,000	2,000





클래시스

매출액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출처] 키움증권 신민수 애널리스트

2Q24 호실적 달성, 모범생의 질주

2Q24 잠정 실적은 매출액 587억(YoY +28.0%, QoQ +16.6%; 컨센서스 및 당사 추정치 부합), 영업이익 312억(YoY +34.7%, QoQ +17.6%, 영업이익률 53.1%; 컨센서스 +5.4% 상회, 당사 추정치 -3.0% 하회)이다.

2분기 성수기 효과를 누린 장비 매출액은 299억(YoY +36.1%, QoQ +43.5%, 매출 비중 50.9%; 당사 추정치 부합)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브라질에서의 HIFU 장비 '울트라포머 MPT' 수요 강세, 태국에서의 '울트라포머 3', '울트라포머 MPT', 비침습 RF 장비 '볼뉴머'의 전반적인 성장세로 장비 수출액을 233억(YoY +42.9%, QoQ +62.9%) 기록하며 사업부 성장을 이끌었다.

소모품 매출액은 261억(YoY +19.8%, QoQ -1.2%, 매출 비중 44.4%; 당사 추정치 부합)으로 전 분기보다 규모와 비중이 모두 줄었다. 시술 수요가 줄어든것이 아니라 계절성에 의한 조정으로, 2H24 소모품 매출액 반등을 예상한다.

매출총이익률은 80.9%로, 또 다시 역대 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당사가 계속 강조해온 Lean 공정과 고환율 수혜, 데모 장비의 정식 판매 전환에 따른 해외 '볼뉴머' 장비 ASP 희석 효과 감소로 원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판관비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을 동사의 장비 프로모션 모델로 선정하였으나, 관련 비용 인식은 7월부터로 2Q24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국 시장진출 컨설팅 비용, 이루다와의 합병 관련 자문 수수료 등이 집행되었으나 이익률을 크게 낮출 만한 요인은 되지 않았다.

다가오는 미국 진출 모멘텀, 목표주가 5.8만 원으로 상향

선행 4개분기 EPS 전망치 1,943원에 목표 PER 30배를 적용하여 목표주가 58,000원으로 상향한다. '24년 연간 매출액 가이던스 YoY +25%를 2개분기 연속 상회하는 외형 성장세를 기록했다. 수년째 착실히 사

업을 키워오고 있는 모범생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원가 절감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며 매출총이익률이 '24년 80.2% → '25년 80.4% → '26년 81.2%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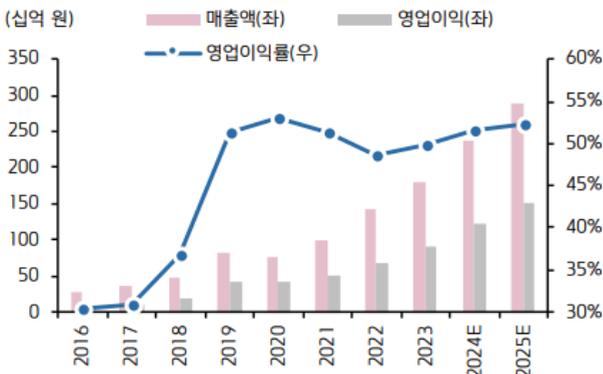
'22년 11월부터 국내 판매를 개시한 '볼뉴머'의 국내 누적 장비 판매 대수가 연말 700대 수준으로, 국내 연간 '볼뉴머' 소모품 매출액 96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파트너사 계약 체결은 9월 말에 마무리한다는 기존의 목표대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4Q24 미국 출시 이후 '25년부터 유의미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판가 전략이 갈릴 예정이다.

투자지표

(십억 원)	2022	2023	2024E	2025E
매출액	141.8	180.1	236.9	287.9
영업이익	68.9	89.6	122.1	150.7
EBITDA	72.8	93.9	127.1	155.2
세전이익	96.8	93.8	144.8	166.4
순이익	75.4	74.2	115.8	133.1
지배주주지분순이익	75.4	74.2	115.8	133.1
EPS(원)	1,164	1,146	1,789	2,004
증감률(% YoY)	71.9	-1.5	56.1	12.1
PER(배)	15.8	32.9	28.7	25.6
PBR(배)	5.19	8.63	8.82	6.73
EV/EBITDA(배)	15.8	25.3	24.4	19.3
영업이익률(%)	48.6	49.8	51.5	52.3
ROE(%)	38.3	28.9	34.6	29.8
순차입금비율(%)	-19.7	-25.5	-46.7	-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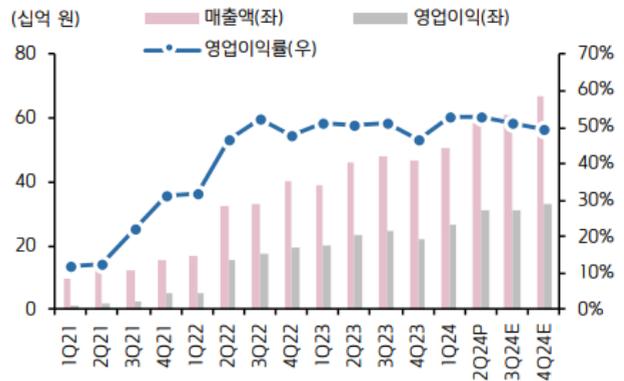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클래시스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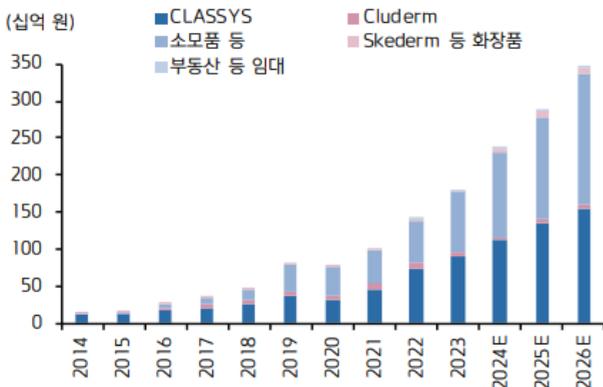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클래시스 분기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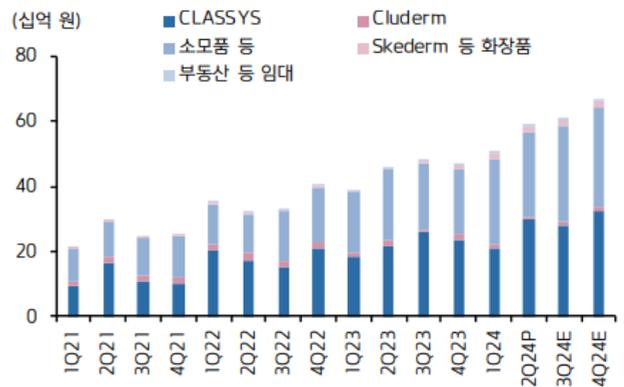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클래시스 사업부별 연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클래시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클래시스 사업부별 분기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클래시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바디텍메드
 차별화된 실적과 모멘텀의 진단키트 강자
 [출처] 유안타증권 손현정 애널리스트

내년 반려동물 진단 시장 진출

바디텍메드는 이르면 내년 반려동물 진단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유럽, 중남미를 포함한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한 대형 동물 진단 업체와 OEM 공급계약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물 진단 카트리지의 ASP는 4달러로 추정되어, 기존 제품의 ASP 1~2달러에 비해 단가가 높아,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동물용 진단 제품은 사람용에 비해 인증 절차가 간단하지만, 레퍼런스 구축에 진입장벽이 높다. 글로벌 유통망을 보유한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은 신규 사업 확장에 있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중국 당뇨 진단키트 공급 시작

동사는 4Q24부터 파트너사 조인스타를 통해 중국에 당뇨 진단 제품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의 기초의료개혁의 수혜로 판단되며, 올해 저장성 보건센터로 초도 물량이 공급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본 물량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공급하게 될 제품은 HbA1c(당화혈색소) 카트리지로 올해 10월 내 인증이 완료될 전망이며, 향후 인슐린, C펩타이드 등 추가 공급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2Q24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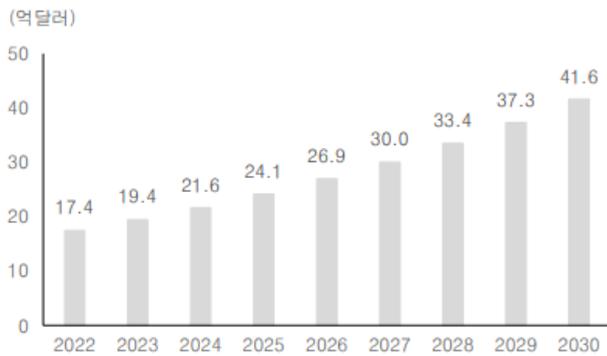
2024년 매출액은 1,560억원(YoY +16.2%), 영업이익 365억원(YoY +28.2%, OPM 23.4%)을 추정한다. 이는 하반기 반영될 중국 기초의료개혁, 반려동물 진단 매출은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인 수치이다. 최근 국내 코로나 재확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추후 실적 상향 가능성은 더 열려 있다. 2Q24 실적은 매출액 365억원(YoY +10.3%), 영업이익 90억원(YoY +52.5%, OPM 24.7%)을 예상한다. 하반기에는 신사업 진출이 다수 기대되는 만큼,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주가는 24년 실적 기준 PER 12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한 상황이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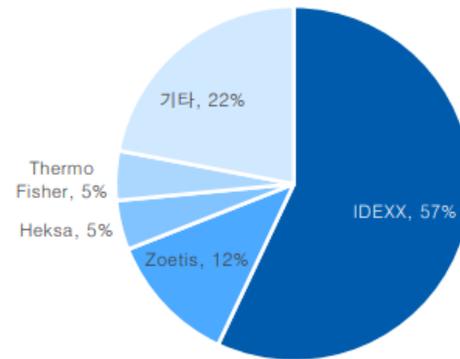
결산 (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매출액	1,441	1,577	1,181	1,342
영업이익	660	519	247	285
지배순이익	455	444	242	259
PER	11.1	10.4	12.6	13.2
PBR	4.1	2.9	1.7	1.7
EV/EBITDA	6.5	7.0	8.2	7.9
ROE	47.0	32.7	15.4	14.8

글로벌 반려동물 POCT 시장 규모



자료: Grand view research,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반려동물 진단시장 M/S



자료: 바디텍메드,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